

News

금융당국, LH 투기 의혹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점검 착수

뉴스1

금융당국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체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조사에 착수. 비주담대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투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실태 파악 전체 금융권 익스포져 중 주담대와 비주담대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는지 종류별 현황과 취급 절차 등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

카뱅·케뱅크, 대출금리 높인데 고객도 골라받는다... '뺏속 채우기' 장사 급급

아주경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금리가 시중은행에 비해 일제히 높았지만, 고신용자 대출 취급 비중은 전체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수익 위주'의 영업을 지속한 셈 1~2등급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금리, 케이뱅크(3.04%), 카카오뱅크(2.77%)가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2.70%), 하나은행(2.68%), 신한은행(2.52%), KB국민은행(2.42%)

은성수, 사모펀드 사태 지적에 "감독이 못 따라 갔다"

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갑자기 사모펀드는 팽창했는데 감독이 못 따라갔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만 개가 되는 펀드를 소수 인원으로 다 (감독)할 수 없는 건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지주 상반기 2조 실탄 쌓지만, 매물 품귀·규제로 M&A '난항'

파이낸셜뉴스

올해에도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대규모의 신증자본증권을 발행하며 M&A 작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매물 품귀 현상과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로 성공 여부는 불확실 보험사, 증권사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몸값이 크게 상승해 매물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특히 중대형 금융사는 이른 시기에 매물로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 우세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제재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

뉴스1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태와 관련해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던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 부각 앞서 지난달 19일, 이달 4일 2차례 진행된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제재심에서는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 결론이 나지 않았다. 3차 제재심 개최는 25일 유력

시장금리는 오르는데...생명보험업계 보험료 또 인상

연합뉴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이달과 다음달 보험료를 10% 내외로 인상.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3~5월에 예정이율을 2.25%에서 2.0%로 내린 영향 예정이율이 0.25% 떨어지면 신규 또는 갱신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7~13%가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꾸준히 늘어나는 보험사 주담대...DB손보는 급감 '왜?'

아시아경제

손해보험사 대출채권 중 53%를 차지하는 부동산담보대출금(주담대)도 같은 기간 8.5% 증가했다. 그러나 업계 3위인 DB손해보험은 약 20% 급감 지난 2017년 주담대 경쟁 과열로 인해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한 탓이다. DB손보는 자산운용 전략에 있어 주담대를 중단하는 등 타사와 다른 전략을 구현

한화손보, 캐롯손보 이전 중단...매각 염두 뒀나

더벨

한화손해보험이 자회사 캐롯손해보험을 계열사로 이전 작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 대주주의 중징계, 한화손보의 매각 가능성과 연결해 바라보는 시선 등 다양하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다. 한화손보와 캐롯손보를 '1+1'로 묶어 매각하는 방안, 그리고 기관광고 효력이 끝난 11월 이후 두 회사를 분리해 한화손보만 매각하는 방안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